

## 스포츠 종합

8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장애청년 지원금 1억 원을 기탁한 장하나. 사진제공 | 푸르메재단

### 통산 상금 50억 돌파 장하나 장애청년 지원금 1억원 기부

여자 프로골퍼 장하나(29·비씨카드)가 장애 청년을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비영리공익재단 푸르메 재단(이사장 강지원)은 장하나가 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하나는 6일 KLPGA투어 롯데 오픈 우승으로 KLPGA투어 통산 14승을 기록했고, 상금도 사상 처음으로 통산 50억 원을 돌파했다. 장 하나는 지원금 기부에 대해 “좋은 일을 위한 나눔은 미루지 않고 결심했을 때 바로 해야 하는 것 같다”며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 하나는 2017년 장애 어린이 재활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면서 푸르메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 미라클스’(The Miracles) 13호 회원이 됐다. 2019년에도 시즌을 마치고 장애 청년 일자리 창출에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푸르메 재단에만 지금까지 3억 원을 기부했다.

장 하나는 “어머니(김연숙 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변 보육원에 돈을 보내고 보육원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이는 걸 보고 자랐다”면서 “장애 청년들이 자립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SK〉 〈DB〉 〈삼성〉 워니·메이튼·히스 재계약 다음시즌에도 KBL서 뛴다

KGC 설린저·전 전자랜드 모터리는 재계약 거부

외국인선수 자필 워니(27·서울 SK), 안테 메이튼(25·원주 DB), 아이제야 히스(27·서울 삼성)가 2021~2022 시즌에도 KBL 무대에서 뛴다.

KBL은 15일 오후 외국인선수 재계약 결과를 발표했다. SK는 2019~2020시즌 외국인선수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워니와 한 시즌을 더 보내기로 했다. SK 전 회장 취임 감독은 2020~2021시즌 상대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복이 심했던 워니가 기량 자체는 괜찮다고 판단해 한 번 더 신임하기로 했다. 닉 미네라스와는 재계약을 포기했다.

DB도 메이튼과 한 시즌을 더 함께한다. 메이튼은 2020~2021시즌 대체선수로 DB 유니폼을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선수 물색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능해 DB 이상범 감독은 검증된 메이튼과 동행을 결정했다. DB는 일본 B리그 팀과 계약한 저스틴 녹스를 대체할 새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다.

삼성도 히스를 잔류시켰다. 삼성은 히스가 지난 시즌 팬층을 활약을 보였다는 점과 함께 새 외국인선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시즌 안양 KGC를 플레이오프(PO) 10전승으로 이끌며 챔피언에 올러놓은 제러드 설린저(29), 한국가스공사의 전신 인천 전자랜드가 4강 PO에 진출하는데 일조한 조나단 모트리(26)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설린저와 모틀리는 다음 시즌 KBL 무대에서 볼 수 없다. 소속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받고도 사인하지 않은 외국인선수는 해당 팀과는 한 시즌 이후, 타 구단과는 3시즌 이후 계약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 서창완-김세희, 근대5종 세계선수권 혼성계주 사상 첫 金



김세희(왼쪽)와 서창완이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1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근대5종연맹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봉사활동에 유소년 장학사업·부정방지 강사까지 속죄의 시간 보냈지만...

## KBL, 강동희 전 감독 제명 징계 유지

농구계, 강 전 감독 선처 탄원에도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위해 기각”

KBL이 승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동희 전 감독(55)에 대한 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의했으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KBL은 15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강 전 감독의 제명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는 “강 전 감독이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국위를 선양한 점, 징계 후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활동을 했고 유망 유소년선수 장학사업과 부정방지 강사

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L은 최근 강 전 감독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농구계의 탄원서가 접수돼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재정위를 개최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강 전 감독은 현장 복귀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구 선수로 생활하는 자녀 등 가족들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권 의지를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독은 소명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재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날 현장에 출석하



강동희 전 감독

지는 않았다.

강 전 감독은 원주 동부(현 DB) 지휘봉을 잡고 있던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브

로커들로부터 4700만 원을 받고 2011년 2~3월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 도중 후보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 때문이었다. 법원의 판결 이후 KBL은 재정위를 열어 강 전 감독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강 전 감독은 형 집행 기간에 이어 자숙기간을 거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부정방지 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프로농구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전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강의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강동희 장학금 수여식 등을 통해 농구계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여자배구대표팀 VNL, 감 잡았어

세르비아·캐나다 꺾고 대회 첫 연승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연패를 거듭하던 여자대표팀이 반등하고 있다. 주전선수들의 대거 교체로 리듬이 필요했던 대회 3주차까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었지만, 4주차부터 리부팅으로 해법을 찾은 느낌이다.

12일(한국시간) 러시아를 상대로 첫 세트에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인 대표팀은 14일 세르비아, 15일 캐나다를 연파하고 이번 대회 첫 연승을 신고했다. 15일 현재 3승9패, 승점 9로 전체 16개국 중 14위다. 우리보다 아래에 이탈리아와 태국이 있다.

특히 세트스코어 3-2(15-25 25-18 27-29 25-20 21-19)로 승리한 15일 캐나다전 5세트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뜨거웠다. 먼저 매치포인트에 몰렸던 대표팀은 13-14에서 박정아의 극적인 1대1 블로킹 성공으로 듀스를 만든 뒤 양효진의 서브에이스로 경기를 끝냈다. 박정아는 팀 내 최고인 24득점을 기록했다.

여전히 김연경이 팀을 이끌고, 센터와 라이트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등 전체적 플레이에는 변화가 없지만 차츰 각 포지션의 주전이 정해지면서 조직력이 맞아가는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연패를 거듭하던 여자배구대표팀이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14일(한국시간) 세르비아를 제압한 데 이어 15일 캐나다전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이겼다. 캐나다전 승리 직후 환호하는 여자배구대표팀. 사진제공 | 국제배구연맹(FIVB)

느낌이다. 사실상 2진이었던 세르비아를 상대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김연경의 대각 레프트에 박정아를 먼저 투입하고, 막판에 이소영을 활용했다. 그동안 리시브 약점 때문에 레프트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봤던 박정아가 상대의 서브를

어느 정도 견디며 공격에서 역할을 해주자 전체적 플레이가 원활해졌다. 라이트 정지윤의 공격효율도 점점 높아지면서 대표팀의 좌우균형이 잡혀가고 있다.

3주간의 실전으로 서로 호흡이 향상된 대표팀은 다양한 공격옵션을 시도하며 이제

는 상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아직 연결은 부정확하고 중앙에서 파괴력도 아쉽다. 하지만 이 정보다 희망이 보인다는 점에서 마지막 남은 3연전이 기대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